

전문 번역사의 MTPE 인식 전환 가능성 모색 —아비투스 개념을 중심으로

명 선 혜
(이화여대)

1. 서론

국내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신경망 기계번역 기술(NMT) 도입 이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의 품질은 영어를 다른 언어로 바꿨던 것과 비교해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영어-러시아어 번역 시의 품질 개선도 보다 4배가량 높은 수준이다(한국경제, 2017. 2. 29).¹⁾ 네이버는 2019년 3월 기준 파파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1년 만에 약 2배 이상 늘어난 1000만 명을 기록했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는 2000만 건이 넘었다고 발표했다(인더뉴스, 2018. 11. 12).²⁾ 한 증권회사 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시장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 통번역 시장은 2013년 2억 5000만 달러에

서 2014년 6억 1000만 달러(약 6900억 원) 규모로 커졌으며, 연평균 19.1% 급성장 중이다(한국경제, 2019. 3. 14).³⁾ 그러나 아무리 방대한 규모의 언어 쌍 데이터가 구축되고, AI와 빅데이터에 힘입어 MT 산출물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 해도 인간의 후처리 과정(포스트에디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산출물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뿐더러, 행간의 숨은 뜻과 원문이 전달하는 감정적인 부분, 언어유희 등을 기계번역이 다 해결할 수 없으며, 기계는 알 수 없는 에러를 낼 가능성도 있다(신지선, 김은미 2017).

알렌(Allen 2003)은 포스트에디팅(PE)을 기계가 번역한 내용을 수정, 교정 및 개선하는 작업으로 정의한다. PE는 완성도에 따라 ‘Light PE(LPE 혹은 rapid PE)’와 ‘Full PE(FPE 혹은 publishable PE)’로 크게 분류된다. NMT를 위시한 MT의 발전 덕분에 포스트에디터 모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영어를 몰라도 포스트에디터가 될 수 있다’는 광고도 찾아볼 수 있다. 외국어를 몰라도 MT를 활용하여 번역이 가능할까? 코엔(Koehn 2010)은 아라비아어와 중국어를 모르는 영어 사용자가 MT(PE 포함)를 활용하여 어느 정도까지 아라비아어와 중국어를 이해 및 번역할 수 있는지 실험한 결과, 이중 언어 구사자인 전문 번역사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단일 언어 사용자도 MT를 활용해 외국어 원문 내용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해당 외국어를 알고 있는 일반인이나 초보 수준의 번역사의 경우, 기계 번역 활용 시 번역 생산성과 품질이 매우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Koehn & Haddow 2009).

전문 번역사의 경우는 어떠할까? AI 시대를 맞이하여 PE는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번역 능력으로 꼽힌다(신지선 2017). 오브라이언(O'Brien 2002)은 번역과 감수는 PE 행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PE를 배우기 가장 좋은 후보자로 번역사를 지목한다. 그러나, 전문 번역사들은 자신만의 번역 스타일이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에 PE를 꺼려하거나(Flanagan & Christensen 2014), PE 기술이 없는 번역사들은 MT에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O'Brien 2002). 한편, PE 경험이 있는 번역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류를 포착하는 능력이 빨라지고 MTPE 생산성도 향상되었다고 느끼나, 효율이나 작업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1) 한국경제 2017년 2월 29일자 기사, 2020년 6월 2일 검색
2) 인더뉴스 2018년 11월 12일자 기사, 2020년 5월 20일 검색

3) 한국경제 2019년 3월 14일자 기사, 2020년 6월 2일 검색

다(Guerberof-Arenas 2013).

전문 번역인의 한 사람인 필자 역시 PE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MTPE가 무엇인지 경험하고자 NMT 언어쌍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 포스트에디터로서 참여한 바 있다.⁴⁾ 본 프로젝트에는 총 100명의 번역사(일반 번역사, 전문 번역사 포함)가 포스트에디터(80명)와 리뷰어(20명)로 참여했는데, 그 중 전문 번역사라 할 수 있는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번역사 참여율은 전체 8%로 매우 저조했다(통번역대학원 재학생은 제외).⁵⁾ 이는 단일 프로젝트의 사례에 국한된 경우일 수도 있으나, 국내 전문 번역사들도 MTPE 작업을 기피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번역 능력으로 PE가 손꼽히는 상황에서, 번역사들은 참여를 망설이기 보다 적극적으로 번역 업계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는 없는가 등의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문 번역사들에게 막연히 미래 시장의 가능성만을 제시하며 MTPE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권할 수는 없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뚜렷한 동기와 필요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수의 전문 번역사들이 MTPE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전문 번역사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번역사의 MTPE 인식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번역사들이 MTPE에 보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 주제와 직결되어 있는 선행연구로 번역사의 PE 능력 고찰, 번역사의 PE 인식 및 PE 교육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와 가장 유의미한 연구로써, 전문 번역사가 MTPE를 기피하는 원인을 부르디외(Bourdieu 1984)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기반으로 분석한 사카모토(Sakamoto 2019)의 연구를 자세히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근거로 전문 번역사들이 MTPE를 기피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MTPE에 대한 전문 번역사의 인식 전환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카모토의 연구와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나, 사카모토는

LSP 업체 프로젝트 매니저의 눈을 통해 전문 번역사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바라본 의견을 기반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문 번역사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카모토는 안정적인 PE 요율을 통해 전문 번역사의 MTPE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번역사와 포스트에디터의 영역을 여전히 구분해 놓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번역사의 영역으로 PE 분야를 초대하여 번역사가 추구하는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가치와 속성을 보존하면서도 전문 번역사의 영역이 유지 및 확장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사카모토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2. 문헌 고찰

2.1 PE 관련 연구

핼(Pym 2013)은 MT가 언젠가는 대부분의 번역사를 포스트에디터로 전향시킬 것이라 주장하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로 크게 학습 기술, 데이터 구분 기술, 텍스트 차원의 교정 기술을 강조한 바 있다. 가르시아(Garcia 2009)도 로컬라이제이션 업계 내의 전문 번역사 업무 유형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핼(2013)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구아텍(Gouadec 2007)은 번역사는 단순히 번역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관리 전문가, 기술자, 용어전문가, 어법전문가, 번역사, 번안가, 감수자, 교정자, 품질관리 전문가, 포스트에디터, 편집자, 그래픽디자인 전문가, 웹페이지 디자이너, 웹페이지관리 전문가, 파일관리자, 통제언어 작성자, IT 전문가이기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지선, 김은미(2017)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패러다임 하에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새로운 번역 능력으로 PE를 제안하였다. 신지선(2017)은 과거에는 번역사가 시간을 두고 고민하며 인지적 노력을 기울여 번역문을 생각해 냈다면, 이제는 기계나 틀이 제시해주는 가능한 해결책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백지상태에서 시작하여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도움으로 생성해낸 초안을 신속 정확하게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번역사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요구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김순미(2018)는 인공지

4)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주최로 2019년 5월~12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 되었으며, NMT 번역 후 도출된 영한 문장을 사후 처리(PE)하는 단일(공개)프로젝트이다.

5) 전문 번역사 선발 기준이나 자격 논란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전문 번역사는 국내의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한 번역사로 한정한다. 상세 참여자 정보는 부록 참조.

능 시대에 통번역계가 사라지거나 기계를 이기고 살아남는다는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나 기계와 공존하며 발전하는 구체적인 협력방법을 제시하였다. 기계로 대체되지 않는 업무는 기계사용을 통해 더욱 확장된다는 경영학의 “증강(augmentation) 이론”과 “기계와 인간의 상호보완 이론(Autor 2014)”을 통번역 업계에 대입시켜 번역사가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로 PE를 소개하였다. 최수연(2017)은 AI 시대의 기계번역 발전에 의해 기술을 보다 잘 다루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영상 번역가가 교체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또한, MT가 대체할 수 없는 분야로 문학번역이 꼽히고 있지만, 기계가 쓴 소설이나 시나리오가 공모전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상황까지 이르렀기에, 영상 번역을 비롯한 번역가들의 돌파구 중 하나는 “창조적 감수”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 언급하였다.

번역사들의 PE를 기피하는 원인과 관련하여, 신지선(2017)은 FPE가 요구되지 않는 이상 목표 언어의 기본 어법에만 맞게 고치는 것이 PE의 기본 방침이나, 전문 번역사들은 그러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PE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전문 번역사들은 원문과 MT 산출물을 읽고, 이해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등 PE 작업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MT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번역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Aranberri, Labaka, Díaz de Ilarraza and Sarasola 2014). 로컬라이제이션업체 소속 스페인-영어 전문 번역사(24명)와 리뷰어(3명)를 대상으로 번역사의 PE 인식을 조사한 연구(Guerberof-Arenas 2013)에 따르면, 전문 번역사들은 MTPE는 사람이 한 번역을 감수할 때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MTPE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하나, 비용 책정, 비효율적 작업 방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빈(2017, 2018)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PE 수업을 통해 PE의 실력 향상에 앞서 번역 능력이 먼저 향상되어야 함을 고찰했다. 김순미(2017)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NMT 번역 수업을 실시하여 MT 수업 후 학생들의 원문 파악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기계번역 결과물 속에서 많은 영어 표현을 배울 수 있는 등 장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번역 실력 향상보다는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번역 능력을 키우기에 앞서 감수 능력 먼저 키우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박혜경(2018)은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MTPE 관련 교육을 언어 방향 별로 각각 3

주간 실시하여 석사생들이 PE를 하기에는 전문용어를 비롯한 배경지식과 어휘력, 문장력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PE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제반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하는데 학생들은 아직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석사과정에 기계번역을 도입할 때는 적용 가능한 범위와 적절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고찰하였다. 이주리애(2018)는 기계와 인간의 협업은 향후 일반화될 수 있는 현상이라 고찰하며, 기술번역의 경우 PE를 염두에 둔 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전현주(2017)는 인공지능, MT, 로컬라이제이션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주제와 관련하여 통번역 관련 학회 차원에서 마련한 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통번역(학)의 연구물 성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고찰했다. 또한, 통번역 학계와 교육기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MTPE 등에 보다 유연한 태도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와 같은 연구를 종합해 보면, PE는 새로운 시대에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손꼽히나, PE시 요구되는 새로운 개념이나 능력을 받아들이지 못한 전문 번역사는 MTPE를 기피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PE 교육이 학부 및 석사 과정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학계 차원에서도 MTPE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은 PE 교육의 필요성을 증명하나, PE 능력 향상에 앞서 외국어 및 번역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2.2 아비투스 이론에 근거한 PE 연구

본 연구와 가장 유의미한 연구로써, 부르디외(1984)의 아비투스 개념을 기반으로 전문 번역사들의 PE 기피 원인을 고찰한 사카모토(2019)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부르디외의 아비투스는 가정이나 교육 배경을 통해 형성된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 모습 속에 나타나는 성향(disposition) 체계를 뜻한다. 아비투스는 개인 혹은 집단이 활동하는 영역, 즉 필드(field 혹은 장: 하위 개념의 필드와 전문 필드로 구성, 세력의 충돌이 일어난 곳)에서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자본(capital)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상생활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다. 부르디외는 경제적 자본(economic capital: 돈이나 물질적 대상),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가족과 학교에서 오랫동안 체화된 문화자본, 가치 있는 문화적 대상물 축적, 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제도적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인간관계나 사교 활동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 상징적 자본(symbolic capital: 신용·명예·인정)등으로 자본의 종류를 구체화 하였다(정일준 1995). 시메오니(Simeoni 1998)는 번역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비투스라고 주장하며 아비투스 개념을 번역학에 처음 접목시켰다. 시메오니(1998: 22)는 번역사의 아비투스는 일상생활과 교육을 통해 접촉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미 형성된 아비투스와 규정과 관습을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현재 진행형의 아비투스가 있다고 보았다. 셀라셰피(Sela-Sheffy 2005)는 번역사들은 상징적 자본을 자율적인 원천으로 삼아 자신을 전문 번역사로 위치시켰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자본을 스스로 획득한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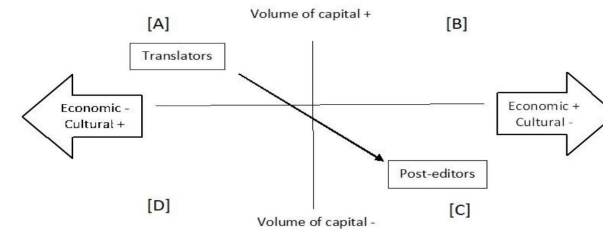
사카모토(2019)는 전문 번역사가 PE 업무를 기피하는 원인을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하고자, 번역사의 PE 업무 시 자본 구성과 번역 필드 내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영국 내 총 155개 LSP 소속 프로젝트 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담화 내용, LSP 업체 웹페이지 상에 나타난 MTPE 관련 문구, LSP 업체 포스트에디터 트레이닝 매뉴얼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대부분의 PM들은 MTPE 중심의 업계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나, MTPE 사용에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고객에게도 MTPE를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MTPE를 권장하면 실력 좋은 전문 번역사들이 회사를 떠날까 봐 권유하지 않는다. 전문 번역사들은 MTPE가 ‘지루하고 노력만 많이 필요한 작업’이며, 그에 비해 ‘요율은 낮다’고 생각한다.
- 포스트에디터 트레이닝 매뉴얼에는 PE 지침과 규정이 너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전문 번역사의 인지적 혹은 지적 활동에 방해를 주며, 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을 노골적으로 명시한 것과 다르없다.

사카모토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에 근거하여 전문 번역사가 MTPE를 기피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포스트에디터 트레이닝 매뉴얼에서 과

악된 전문 번역사의 인지적 혹은 지적 활동 제한은 번역사가 누렸던 문화적 혹은 상징적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뜻한다. PE 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강조되는 사항은 포스트에디터에게는 경제적 자본이 비교적 큰 가치를 지닌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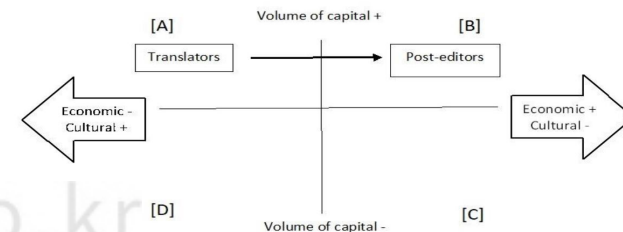
그림 1 번역 필드 내의 번역사와 포스트에디터의 필드 내 위치도(사카모토 2019)



오랜 세월에 걸쳐 위 표의 (A) 영역에 스스로를 위치시킨 전문 번역사들은 (C)라는 하위 필드로 내려가기를 거부한다. 이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자본 속성 변화와 자본 총량 감소에 대한 거부로도 볼 수 있다. 필드 내의 위치와 기존의 자본 속성이 변할 때 사람들은 새로운 필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동을 겪거나 거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부르디외는 “이력현상(hysteresis effect)” 또는 “돈키호테 현상(Don Quixote effect)”이라 칭했다.

사카모토는 “공정한 요율 모델(Vashee 2013:144)”을 통한 안정적이고 동기 부여가 가능한 근무 환경을 포스트에디터에게 제공하면 번역사들의 PE 업무 진출 시 그림 2와 같은 수평적 필드 내 이동이 가능하다고 고찰했다.

그림 2 공정한 요율 모델 적용 시 번역 필드 내 위치 변화(사카모토 2019)



이렇게 되면 필드 내의 상하 이동이 아닌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전문 번역사들이 겪는 ‘이력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과정(커리큘럼)을 통해 한 집단이 바라는 상징적 또는 문화적 아비투스를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며 PE를 교육과정에 넣을 것을 제안하였다.

사카모토가 고찰한 번역 필드 내에서의 전문 번역사와 포스트에디터의 위치 및 각각의 영역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본 속성별 차이는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다만 전문 번역사가 아닌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투영된 간접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번역사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이 중요한 요소임을 고찰했으나, 경제적 자본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여전히 번역사와 포스트에디터의 영역을 구분해 놓아 자본 속성의 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며, ‘안정적인 PE 요율’을 제시하도록 업체나 고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긴다. PE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역시 하지 않았다.

3. 연구방법

국내 전문 번역사의 MTPE 관련 인식을 파악하고자 국내외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경력 2년 이상의 국내 활동 중인 전문 번역사 총 19명을 연구 참여로 모집하였다. PE 경험 유무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2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질문과 답변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구조 형식의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코딩을 통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3.1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PE 경험이 없는 1 그룹 인터뷰는 2019년 12월 중, 2020년 1월, 4월 및 7월 중에 걸쳐 진행 하였으며, PE 유경력자로 구성 된 2 그룹 인터뷰는 2019년 8월 중, 2019년 12월 중, 2020년 7월 중에 걸쳐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전화 통화, 화상 통화 및 대면 면담 방식을 통해 각 참여자 당 1회씩 진행하였으며, 인터

뷰 당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50분 사이로, 평균 42분이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녹화) 및 전사하였다. 국내외 소재 통번역대학원 졸업생 모임 관련 그룹 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 MTPE 관련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연구 참여 의향을 보내온 응답자 중에서 1 그룹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총 16명의 1 그룹 연구 참여자는 한영 번역사 9명, 한중 번역사 3명, 한일 번역사 2명, 한불 번역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PE 업무가 의뢰된 적이 있다고 밝힌 참여자는 4명이었으며, 트라도스 사용이 가능 참여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1 그룹 연구 참여자 상세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1 그룹 연구 참여자 상세 정보-총 11명

	성별/ 나이	언어	고용 형태	경력 년수	PE 의뢰	트라도스 가능
참여자 1	여/20대	한영	인하우스	2년	○	○
참여자 2	여/20대	한중	인하우스	2년		
참여자 3	남/30대	한영	인하우스	2년		
참여자 4	남/30대	한영	프리랜서	5년	○	
참여자 5	여/30대	한일	프리랜서/ 인하우스	1년/6년		
참여자 6	여/30대	한영	인하우스/ 프리랜서	1년/5년	○	○
참여자 7	여/30대	한영	인하우스/ 프리랜서	6년		
참여자 8	여/30대	한중	인하우스/ 프리랜서	6년/6년	○	
참여자 9	여/30대	한일	인하우스/ 프리랜서	6년/4년		
참여자 10	여/30대	한영	인하우스	8년		
참여자 11	남/30대	한영	프리랜서	7년		
참여자 12	여/40대	한일	프리랜서	13년		
참여자 13	여/40대	한영	인하우스	10년		○
참여자 14	여/40대	한중	프리랜서	13년		
참여자 15	여/40대	한영	프리랜서	12년		
참여자 16	여/40대	한불	프리랜서	9년		

*표의 인하우스/프리랜서 나열 순서: 기간 중복 없는 순차적 경력을 뜻함.

6) 전문 번역사 선발 기준 및 자격 논란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외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전문 번역사로 연구 참여자를 한정하였으며, 특정 학교나 특정 나이대로 연구 참여자가 몰리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총 3명으로 구성된 2 그룹 연구 참여자는 앞서 소개한 NMT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 번역사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C는 동일 프로젝트 2차에 참여 중이다. 2 그룹 연구 참여자 상세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2 그룹 연구 참여자 상세 정보-총 3명

	성별/나이	언어	고용 형태	경력 년수	기타 사항
참여자 A	여/30대	한영	프리랜서	2년	
참여자 B	여/30대	한영	프리랜서	7년	
참여자 C	여/40대	한영	프리랜서	11년	2 차 프로젝트 참여 중

1 그룹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 번역사로서 MTPE 시장에 참여할 의향은 있는가(기피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MTPE는 전문 번역사도 새로이 배워야 할 능력이나 기술이라 생각하는가?

2 그룹 주요 인터뷰 질문은 다음과 같다. MTPE 프로젝트 참여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MTPE 프로젝트 참여 시, 전문 번역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MTPE가 전문 번역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하는가?

4. 분석 결과 및 논의

4.1 상세 분석 결과 1 그룹

1 그룹 인터뷰에 응한 연구 참여자 중 16명 중 13명이 ‘현재로서는’ PE 작업을 맡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인터뷰 질문에 ‘지금’ 혹은 ‘현재’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지금’ 혹은 ‘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거나 ‘아직은 아니다,’ ‘최대한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PE는 미루고 싶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그때 가서’라는 뜻을 밝혔다. 이를 아비투스 개념에

7) 현재 2차 프로젝트(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진행 중이다.

근거한 사카모토(2019)의 번역사 필드 내 위치와 연관시켜 보자면, 연구에 참여한 전문 번역사들은 현재 번역사로서 누렸던 자본의 속성이 변하는 것과 필드 내 위치가 포스트에디터 영역으로 하향 변동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MTPE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 다른 번역사들도 PE 작업에 참여한다면, 혹은 요율 등의 근무 조건에 따라 필드 내의 ‘나의 위치’를 살펴본 후 합류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PE 업무 시 번역사로서 누렸던 자본 속성의 변화와 PE영역으로 하향 변동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주요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은 다음과 같다.

4.1.1 전문 번역사로서 MTPE 시장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MTPE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13명이 시장 참여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MT 분야, 결과물 상태, 요율을 보고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 그룹 연구 참여자 중 4명 만이 MTPE 작업을 의뢰받은 적은 있으나, 2명은 PE 요율이 불만족스러워 거절했고, 2명은 의뢰에 응하여 PE 작업을 하였으나 더 이상의 추가 작업은 받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MTPE 작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PE 요율 불만족, PE 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요구사항과 실제 고객의 요구 불일치, PE 시 생각보다 오래 소요되는 시간, PE가 감수인지, 재번역인지,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 등의 작업 정체성의 혼란 등이 언급되었다. 단, 나중에 번역사도 PE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가서 PE 분야, 요율 등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4명 모두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인하우스 번역사로 고용되었다가 현재는 동일 회사 소속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7은 몇 년 전부터 회사 차원에서 MT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용어 데이터 확보, 데이터 이전 준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회사에서 프리랜서 번역사 수를 이전보다 많이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대적으로 MTPE 업무를 맡아야 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본인의 MTPE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은 참여할 생각이 없고, 나중에 요율이나 분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시대가 변해도 MTPE 시장에 참여할 생각은 아예 없으며, 문학 번역 등 기계가 넘볼 수 없는 분야에 더욱 집중하거나(1명), 기계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본인의 번역 실력을 월등히 높

어서 더욱 차별화할 것이라는 의견(2명)도 도출되었다.

4.1.2 PE는 전문 번역사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교육 분야라 생각하는가?

MTPE가 전문 번역사가 익혀야 할 번역 능력 혹은 기술인가에 대한 의견에는 상반된 의견이 도출되었다. PE도 하나의 신기술이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12명이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MT 발전 양상에 따라 향후에는 PE 업무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번역사라면 감수는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PE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1명)도 있었다. 1 그룹 연구 참여자 총 16명 중 14명의 연구 참여자가 LPE와 FPE 등 PE 관련 세부적 용어는 처음 들어본다고 답했다. 번역사라면 MT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해당 분야 기사를 접해서라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답변도 도출되었는데 모두 트라도스 사용이 가능한 연구 참여자들(3명)이었다.

그 외로, 이상적인 PE 교육 제공 기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회사 차원에서 MT 체제로의 전향을 언급한 연구 참여자와 인하우스 소속의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 용어나 전문 지식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교육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인하우스 형태로 근무하다 프리랜서로 전향한 연구 참여자들은 통번역대학원에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MT 활용법 및 PE 능력 함양 코스 등을 개설한다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위와 같은 1 그룹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MT 발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문 번역사도 PE를 해야 한다면 그때 가서 할 생각은 있지만 지금은 PE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즉, PE 업무 시 번역사로서 누렸던 상징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의 모든 측면이 현재로서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동료 번역사들이 번역 필드 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번역사로서의 나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 혹은 경제적 자본이 유지 혹은 확장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본 후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는 PE를 맡을 생각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PE 교육은 받겠다는 의견은 향후 포스트에디터로의 역할 전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번역사로서 누렸던 자본

속성이나 업계 내의 위치변화를 감안하여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PE가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되어도 문학 번역 등에 집중하거나 PE 업무는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번역사들은 번역사로서 누렸던 자본 중에서 문화적, 또는 상징적 자본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자본 속성의 변질을 허락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기체가 쓴 문학 소설과 시나리오가 작품상을 수상할 정도로까지 발전한 상황에서 창조적 감수(최수연 2017) 능력이 문학 번역에서도 요구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4.2 상세 분석 결과 -2 그룹

PE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로 구성된 2 그룹 인터뷰는 전문 번역사로서 PE 프로젝트 참여 목적, PE 시 경험한 고충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PE 경험자로서 MTPE 업무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 그룹 연구 참여자 역시 PE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은 있으나, 별도의 PE 업무가 들어온다면 효율이나 내용을 보고 결정하거나 향후에 참여할 생각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아비투스 개념에 근거한 사카모토의 번역사 필드 내 위치와 연관시켜 보자면, 2 그룹 연구 참여자들은 PE 업무 시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혹은 경제적 자본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 그룹 연구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번역사로서 누렸던 자본 속성의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번역사 영역에서 포스트에디터 영역으로 하향 변동되는 것은 꺼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그룹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번역사로서 누렸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 속성이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태도이며, 효율을 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본 만이라도 보호하고 싶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세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4.2.1 MTPE 프로젝트 참여 목적은 무엇이었나?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PE 효율이 생각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PE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고, 향후 PE 분야가 전문 번역사로서 참여할 만한 업무인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참여 했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 참여자 C는 PE는 연습과 경

힘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능력이라 생각하며, PE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검색 과정 등을 스스로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향후 적정한 PE 효율 제시가 가능하기에 2차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 프로젝트가 마무리 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1차에 비해 기계 번역기의 정확성이 훨씬 높아진 것이 느껴진다고 하며, 업계 변화를 직접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4.2.2 번역사의 입장에서 PE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너무 완벽하게 고치려 하지 말고, 뜻이 통하고 문법만 맞으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정도로 PE 작업을 해달라’는 LPE에 가까운 PE 작업 지침이 있었으나,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PE를 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연구 참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PE 작업이 익숙하지 않은 프로젝트 초반 단계에서 겪은 현상이다. 이는 의뢰인이 FPE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PE 작업의 기본 방침은 목표 언어의 기본적인 어법에만 맞으면 되는데, 전문 번역사들은 그러한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PE의 어려움을 겪는다(신지선 2017)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PE 작업 지침이 FPE라면 그런 고민이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추가 질문에는, FPE의 경우라면 결과물을 번역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있었다. 또한 FPE라면 효율도 상승하게 될 것이므로, 전문 번역사라면 향후 FPE를 더욱 선호할 것 같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아비투스 개념으로 해석해 보자면, 번역사 스스로 결과물의 완성도에 만족을 못하는 상황에서 수정(PE)을 마무리 짓는다는 개념 자체가 번역사의 상징적 혹은 문화적 자본이 침해 된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편, FPE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존의 번역사로서 누렸던 문화적 혹은 상징적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침해된다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4.2.3 PE 경험자로서, MTPE 분야는 전문 번역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만한 분야라고 생각하는가?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전문 번역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만한 시장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나, 전문 번역사들이 PE 업무에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라

는 대답을 했다. PE 효율 등의 근무 환경적 요소가 개선 되고, 많은 수의 전문 번역사가 PE 분야에 진출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었다.

4.2.4 PE 경험자로서, 다른 PE 업무가 의뢰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당 프로젝트와 별도로 PE 업무가 의뢰되면 말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3명의 연구 참여자 모두 PE 효율을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단, 2차 프로젝트에도 참여 중인 연구 참여자 C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연구 참여자는 지금 보다는 향후 다른 번역사들도 PE 분야에 많이 진출하면 그때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편, 연구 참여자 A는 MTPE가 익숙해지니 예전과 같은 거부감은 많이 줄어들었고, 분야에 따라 고유 명사 등이 잘 나와 번역 시 MTPE를 종종 활용한다고 했다. 연구 참여자 B 역시 예전에는 CAT 툴과 같은 기계 번역기 사용에 거부감이 있었으나, NMT가 매우 놀랍게 발전한 것과, PE가 익숙해지고 나니 지금은 오히려 MT사용이 용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는 번역사에게 PE 능력은 필수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PE 경험과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2 그룹 연구 참여자들도 효율이 만족되면 혹은 지금보다는 향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그룹 연구 참여자들의 PE 효율 관련 의견은 안정적인 PE 근무 환경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 번역사가 PE 업무에 거부감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사카모토(2019)의 고찰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또한 많은 수의 전문 번역사가 PE에 진출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은 동료 번역사도 같은 업무에 참여할 때 형성되는 번역사의 집단 아비투스를 통해 번역사로서 누렸던 사회적, 상징적 혹은 문화적 자본을 보호하고 싶은 심리라 볼 수 있다. 이 역시 전문 번역사로서 누렸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거부이고, 경제적 자본이 하향 조정된 하위 필드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사카모토(2019)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LSP 업체 PM들이 MTPE 중심으로의 번역시장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나, MTPE 사용에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유사한 태도이다.

총 19명이라는 적은 수의 연구 참여자가 전체 번역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과반수 이상의 연구 참여자가 유사한 혹은 동일한 의견을 냈다

는 것은 유의미한 시사점을 갖는다.

번역사는 상징적 자본을 자율적 원천 삼아 스스로 문화적 자본을 획득하는 집단(Sela-Sheffy 2005: 20)이라 앞서 언급한 바 있다. MT 혹은 PE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학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는 것은 전문 번역사의 번역 필드 내 위치와 자본의 속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교수자들의 집단 아비투스가 투영된 행동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전문 번역사가 PE라는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망설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PE 요율을 제시한 사카모토(2019)의 아비투스도 이와 같은 맥락에 속한다. 그러나 MT의 정확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포스트에디터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사카모토가 제시한 전문 번역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안정적인 PE 요율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또한, PE 요율이 상승된다 하더라도 번역사와 포스트에디터의 영역의 구별되어 있다면, 번역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완벽한 기계 번역기의 등장은 일반 사람들의 외국어 공부 필요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전문 번역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한다. 전문 번역사는 기계의 오역이나 행간에 숨은 뜻을 포착할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며 언어적 정확성을 추구한다. 언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으로의 우회적 표현, 즉 창조적 감수자로서의 역량이 더욱 넓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이 한 번역의 감수 업무 시 번역사들은 번역사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이 침해된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는 감수가 번역 업무의 한 형태로써 번역사 영역에 자리잡았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PE라는 새로운 능력을 번역사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끌어와 번역사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번역사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자본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차별성 있는 높은 품질의 PE 결과물을 제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적 자본의 상승도 꾀할 수 있다. 즉, 사카모토(2019)의 번역 필드 내에서 현재 번역사의 위치 변동 없이 자본 총량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전문 번역사들이 번역 업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아가 할 근거이자 동기가 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수의 전문 번역사가 MTPE에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함이 선행되어야 한다.

5. 제언 및 결론

그렇다면 전문 번역사들이 거부감 없이 MTPE 분야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비투스는 복잡한 교육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무의식적 사회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교육을 통해 상속된다(남경태 2012).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사카모토(2019) 역시 교육과정(커리큘럼)을 통해 한 집단이 바라는 상징적 또는 문화적 아비투스를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번역 교수자들이 커리큘럼 구성에 MTPE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보다 많은 수의 전문 번역사들이 MTPE 시장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번역사를 양성하는 최종 기관인 통번역대학원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와 같은 학교 차원의 접근은 전문 번역 과정을 준비 중인 석사 과정 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인 현직 전문 번역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감수와 PE이 접목된 과목을 통번역대학원 석사 과정에 도입한다. 감수와 PE를 접목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비)전문 번역사들의 MT에 대한 거부감을 최대한 줄이는 데에 있다. 현재 통번역 학부 과정에서 MTPE 관련 수업이 도입된 경우는 꽤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웹사이트에 커리큘럼이 공개된 총 6곳의 국내 통번역대학원 중 MTPE 관련 커리큘럼이 석사 과정에 명시된 경우는 “(한중, 한영)로컬라이제이션과 PE”를 교과목으로 둔 곳이 한 곳, 인공지능학 관련 이론 수업 또는 CAT툴 관련 수업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는 곳이 한 곳 있다.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통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서 6주간 MTPE 관련 수업을 진행한 경우(박혜경 2018)도 있으나, 아직까지 MTPE 관련 독립 과목이나 감수와 접목된 통번역대학원 커리큘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통번역대학원 석사 과정생이라 하더라도 PE를 배우기엔 여러모로 실력이 부족하므로(박혜경 2018), 번역 실력이 먼저 향상될 수 있도록 1학년 과정에서보다 2학년 과정에서 도입할 것을 추천한다.

감수와 MTPE의 작업 목적과 방향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MTPE에서 요구되는 완성도의 차등적 개념(LPE, FPE 등)은 감수에서도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감수브리프(Revision brief, 고객의 상세 감수 요청 사항)

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감수 경험이 별로 없거나 감수 작업을 처음 하는 경우 번역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필요 이상의 노력을 쏟아붓기도 한다(이향 2004). 따라서 감수브리프(PE)의 경우, 스타일가이드)에서 요구되는 여러 사항에 맞추어 주어진 번역물을 다양한 수준으로 감수 혹은 PE 하는 연습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감수 수업이 번역 교육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연구의 목적으로 감수 수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된 경우(강경이 2011)는 있으나 아직까지 감수가 번역과 접목 혹은 별도로 통번역대학원 커리큘럼에 언급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감수+PE 과목의 교수자는 기계번역 업체 소속 등의 관련 외부 강의를 보다는 전문 번역사 출신의 강사를 통한 수업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실제로 국내 한 통번역대학원의 SW 융합 교육 사례를 들 수 있다. 진실희(2019)는 CAT 툴을 사용한 기계번역 수업 관련 연구에서, 업체에서 파견된 외부 강사보다는 같은 통번역사 출신의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다가감을 고찰하였다. 즉, 교수자의 아비투스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며 자연스럽게 투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을 위한 MTPE 세미나 혹은 워크숍을 개설한다.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MTPE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은 일종의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리콜 혹은 보수 교육 개념이다.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보수 교육 형태는 실제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술 발전 등 주제나 전문 지식이 급변하는 분야나 주기적인 전문지식 업데이트가 필요한 분야 위주로 제공되며, 졸업생들의 해당 업계의 취업으로, 학교와 업계의 산학협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서울 소재 K 대학교가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친 금융 전문 지식 관련 교육 과정을 개최해 새로이 개발된 분석 기법 활용 법 등을 가르쳤다. 이는 졸업생과 해당 산업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고용으로도 이어졌으며, 졸업생도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얻어 매우 만족도가 높았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셋째, MTPE를 통번역대학원 통번역센터의 서비스 항목으로 개설하고 요율을 공시한다. 전문 번역사들이 MTPE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낮은 요율이다. 실제로 A4 한 장 당 5000원을 제시하는 PE 요율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요율은 기존 번역 업계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형태이며, 양

질의 차별화된 번역 수요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통번역대학원 통번역센터에서 양질의 차별화된 산출물에 알맞은 MTPE 요율을 제시하고 서비스 항목으로 개설한다면, 이에 대한 고객 수요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MTPE 시장에서 전문 번역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통번역대학원과 연계된 통번역센터 중 웹페이지에 기계번역이나 컴퓨터 보조 번역, 로컬라이제이션 등이 서비스 항목으로 명시된 곳은 서울 소재 E 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번역센터로 한 곳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동일 웹 페이지의 서비스 요율 정보에는 MT 관련 서비스 요율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 번역 서비스 요율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인지 혹은 MT 관련 요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불분명하다. 적절한 MT 관련 서비스의 요율이 통번역센터 웹페이지에 명시된다면 전문 번역사의 MT(PE)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과 참여 증대로 연결될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국내 전문 번역사들이 MTPE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먼저 파악하고, 전문 번역사들이 MTPE에 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사카모토(2019)의 제안처럼 PE 요율 등을 조정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면, PE 시 번역 필드 내에서 번역사의 위치는 우측으로 옮겨가지만 수평 상향 이동하기 때문에 전문 번역사들의 PE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데 도움은 된다. 그러나 전문 번역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PE를 교육과정에 도입한다면, MTPE에 거부감을 느끼거나 망설이던 전문 번역사들이 PE를 새로운 번역 능력과 형태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며, 전문 번역사 필드로 PE 업무를 들여와 기존에 누렸던 자본 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자본 총량을 상승 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19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통번역 대학원 출신의 전문 번역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 참여자를 질적, 양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한한 교육적 방안의 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다. 한편, MTPE라는 새로운 기회를 전문 번역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번역사의 인식 전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으며, 그 대책으로 번역사의 아비투스 개념을 근거로 교육적인(혹은 학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다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연구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로는 제시한 방안의 효과성 입증, 번역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PE 문제점, MT 생산성에 대한 번역사와 MT 업체의 관점 차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강경이 (2011)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15(3): 5-87.

김순미 (2017) 「신경망번역기 (NMT) 활용 학부 번역교육의 가능성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5(3): 5-37.

김순미 (2018) 「AI 시대 인간번역과 기계(NMT) 번역의 공존 — 경영학 ‘확장 (Augmentation)’ 전략 중심」, 『통역과 번역』 20(2): 1-32.

남경태 (2012) 『개념어 사전』, 서울: 휴머니스트.

박혜경 (2018) 「석사 과정의 기계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한일번역 전공생의 포스트에디팅 사례를 통하여」, 『번역학연구』 19(3): 163-193.

신지선 (2017) 「테크놀로지 패러다임에서의 번역능력 재조명」, 『통번역학연구』 21(4): 51-71.

신지선, 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5): 91-110.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이상빈 (2018) 「국내학부 번역전공자의 구글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과정 (process) 및 행위 연구」, 『번역학연구』 19(3): 259-286.

이주리애 (2019) 「한일 헤드라인 번역의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고찰」, 『통역과 번역』 21(2): 119-144.

이향 (2004) 「번역물 감수기준의 변천 고찰」, 『통역과 번역』 6(2): 59-79.

전현주 (2017)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 『통번역교육연구』 15(3): 235-261.

정일준, 율김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서울: 새물결. Bourdieu Pierre (1992)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Polity Press).

진실희 (2019) 「4차 혁명시대의 소프트웨어 융합 통번역교육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0(4): 189-218.

최수연 (2017) 「번역학의 ‘기술적 전환’(Technological Turn): AI시대의 영상번역」, 『번역학연구』 18(2): 207-226.

Allen, Jeffry (2003) *Post-editing*, in Harold Somers(ed.) *Computers and Translation: A Translator's Guid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97-318.

Aranberri, Nora, Gorka Labaka, Arantza Diaz de Ilarraza and Kepa Sarasola (2014) ‘Comparison of Post-Editing Productivity between Professional Translators and Lay Users.’ Available at 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WLUZ047L/AMTA-2014-W2-Aranberri.pdf.

Bourdieu, Pierr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London: Routledge.

Flanagan, Marian and Tina Paulsen Christensen (2014) ‘Testing Post-editing Guidelines: How Translation Trainees Interpret Them and How to Tailor Them for Translator Training Purpose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57-275.

García, Ignacio (2010) ‘Is Machine Translation Ready Yet?’, *Target* 22(1): 7-21.

Gouadec, Daniel (2007) *Translation as a Profession*, Amsterdam: John Benjamins.

Guerberof-Arenas, Ana (2013) ‘What Do Professional Translators Think about Post-editing?’,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19: 75-95.

Kenny, Dorothy and Stephen Doherty (2014)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in the Translation Curriculum: Overcoming Obstacles and Empowering Translators’,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8(2): 276-294.

Koehn, Philipp (2010) ‘Enabling Monolingual Translators: Post-Editing vs. Option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Available at 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XUBYWJSK/Enabling_Monolingual_Translators_Post-Editing_vs_O.pdf.

Koehn, Philipp and Barry Haddow (2009) ‘Interactive Assistance to Human

부록

NIA 한영 말뭉치 언어쌍 구축 프로젝트 참여 인원 정보
(자료제공:S 사)

학력 정보	비율
석사(통번역 전공)졸업	8%
석사(통번역 전공)재학 중	12%
석사(현재 박사 학기/타 전공)	15%
석사(해외대학 타 전공)	20%
학사(통번역 전공)	8%
학사(해외대학 타 전공)	15%
학사(영어영문전공)	10%
학사(해외대학 타 전공)	10%

Translators Using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Methods’, *Machine Translation*, Summit XII.

O'Brien, Sharon (2002) ‘Teaching Post-editing: A Proposal for Course Content. Available at 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T59PEHS7/Teaching_Post_Editing_A_Proposal_for_Cou.pdf.

Pym, Anthony (2013) ‘Translation Skill-sets in a Machine-translation Age’, *Meta* 58(3): 487-503.

Sakamoto, Akiko (2019) ‘Why Do Many Translators Resist Post-editing? A Sociological Analysis Using Bourdieu’s Concepts’, *The Journal of Specialised Translation* 31: 201-216.

Sela-Sheffy, Rakefet (2005) ‘How to be a (Recognized) Translator. Rethinking Habitus, Norms, and the Field of Translation’, *Target* 17(1): 1-26.

Simeoni, Daniel (1998) ‘The Pivotal State of the Translator’s Habitus’, *Target* 10(1): 1-39.

Vashee, Kirti (2013) ‘Understanding the Economics of Machine Translation’, *Translation Spaces* 2(1): 125-149.

<인터넷 자료>

한국경제. 2017년 2월 29일자 기사. 2020년 6월 2일 검색.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7020962205>.

인더뉴스. 2018년 11월 12일자 기사. 2020년 5월 20일 검색.
<http://inthenews3.mediaon.co.kr/news/article.html?no=14932>

한국경제. 2019년 3월 14일자 기사. 2020년 6월 2일 검색.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431296>

[Abstract]

Seeking Ways to Change Professional Translators' Perception of MTPE
— Based on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Myoung, Sunhye
(Ewha Womans Universit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artificial intelligence(AI) brings fundamental changes in the way we live, work and even play. So does it in the way we translate. The MT industry is advertising amazing technological advances and the MTPE market is ready to grow in full swing by recruiting and educating post-editors. Several overseas studies showed that professional translators, the best candidates for post-editing, however, tend to avoid PE work. Can't professional translato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TPE field and lead the changes of the translation area?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out how domestic professional translators think about MTPE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t looking for some possible ways that can help professional translators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TPE arena. Based on Bourdieu's concept of habitus, this study analyzes why translators are reluctant to embrace the MTPE field and presents some feasible ways that can be introduced at graduate schools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s and their affiliated research institutions.

▶ Key Words: Bourdieu's habitus, machine translation(MT), market changes, post-editing(PE), professional translators

▶ 주제어: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기계 번역(MT), 시장 변화, 포스트에디팅(PE), 전문 번역사

명선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sunhye.myoung@gmail.com

관심분야: MTPE, 문학 번역, 출판 번역, 번역 교육, 통역 교육

논문투고일: 2020년 8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9일